

인간이 살고 있는 의미의 세계

그레마스 지음 《의미에 관하여》

김인환

이화여대 교수 · 불문학

말라르메는 “문학작품이란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술을 한 바 있다. 필자는 그것이 언어학자에게는 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주문하고 문학자에게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문학 텍스트를 놓고 언어학은 언어학적인 접근을 내세우고 문학은 문학적인 관점만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

기호학-의미작용의 기호학-은 그 두 가지를 이론적으로 수렴하여 문학텍스트를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레마스는 ‘파리학과’의 창설자로서, 그 분야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업적을 남겼다.

메타언어로 해석하기

그레마스의 좋은 저서로는 《구조의미론》(1966), 《의미에 관하여 I》(1970), 《의미에 관하여 II》(1983), 《정념의 기호학》(1991)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그의 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었고 무엇보다 그의 저서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그레마스 기호학의 입문서인 안느 에노(Anne Henault)의 《기호학으로의 초대》(어문학사)와 《의미에 관하여》(인간사랑)가 번역되었다. 후자는 논문집으로서 본래 두권으로 된 것을 그 중 중요한 논문들만을 가려뽑아 한 권으로 엮고 자세한 해제와 해설을 담았다.

학위논문은 제외하고는 그의 첫 저서인 《구조의미론》은 일반언어학적인 의미론을 다룬 것이 아니고 담화와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호학적인 기본개념 내지 메타언어를 풀이한 것이다. 저자는 소쉬르적인 차이에서 출발하여 인접, 이접관계를 고찰하였고, 또한 의소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성을 분석하였으며 동위성개념을 비롯하여 행동자모델의 설정과 프롭(V. Propp)의 《러시아 민담의 형태론》을 토대로 설화적 기능의 개념 등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집약된 이론을 베르나노스의 세계에 적용하였다. 그레마스는 타인 위셀(Tashin Yücel)의 학위논문 《베르나노스의 상상계》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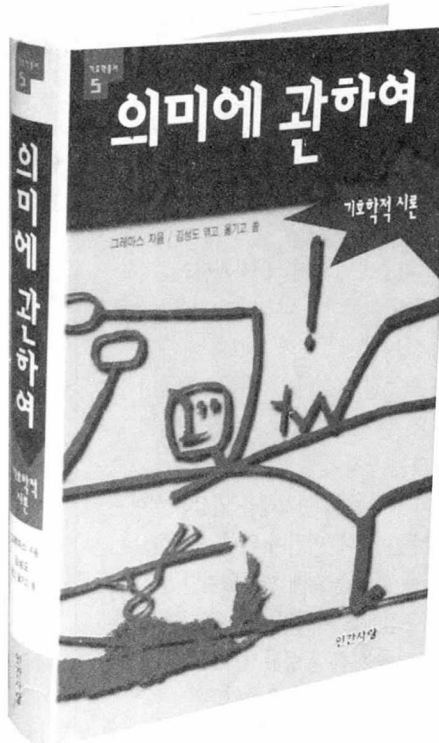
논문집을 모아놓은 《의미에 관하여》는 《구조의미론》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그레마스는 “인간은 의미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세계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지만 일상적인 언어행위에서조차 의미가 지명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해석이 필연적이다. 기호학자는 해석을 위해 메타언어를 사용해 주어진 담화나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층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I권의 서문에서 그레마스는 “인간은 의미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자신이 접하게 되는 모든 언어적 행위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며 안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행위에 있어서도 의미가 지명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소통에는 은유를 비롯하여 애매모호한 요소, 적당히 얼버무린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메타언어이다. 기호학자의 역할은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주어진 담화나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고, 한 언어층위의 것을 다른 언어의 층위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레마스는 “의미는 코드전환의 가능성” 곧 “의미전환의 가능성”이라고 설명한다.

역자는 원서 I권의 15편의 논문 중에서 《의미의 구조》〈자연세계의 기호학을 위한 조건〉〈비교신화론〉〈기호학적 제약의 놀이〉〈서술문법의 기본요소〉〈신화적 서술물의 해석이론을 위하여〉〈서술물의 행동자들의 구조〉 등을 옮겼다. 《의미의 구조》는 사회적·개인적 성질에 속하는 다양한 의미론적 세계의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형식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다.

그레마스는 엘름슬로우의 관점에 의거하여 의미의 세계가 의미의 최소단위 내지 의소로 분절되고 의미구조는 의소범주들의 조합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미소나 발화체의 분석을 통하여 드러나는 의소들을 외향지각적(extéroceptif)인 것과 내향지각적(intéroceptif)인 것으로 나누고 있다.

기호학의 '블랙박스'

역자는 I 권에 실린 논문 중에서 〈비교신화론〉〈기호학적 제약의 놀이들〉〈서술구조의 기본요소들〉 등을 중요하게 해설하고 있다. 〈비교신화론〉은 뒤메질의 신화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화의 통합체적(syntagmatique)구조가 계열체적(paradigmatique)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라스티에와 함께 쓴 〈기호학적 제약의 놀이들〉에서 그레마스는 인간정신이 문학·신화·예술 등의 문화적 대상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순한 요소들로부터 출발한 후 복합적인 행로를 따르게 되는데 그 행로는 내재적 잠재태로부터 현실적 발현에 이르기까지 ①심층구조 ②표층구조 ③발현구조의 3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설은 그 후

틀로서 구체화된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기호학 4각형으로 알려진 구성적 모델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의소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반대관계, 모순관계, 함의관계를 표상하는 기호학 4각형은 프레데릭 제임슨이 〈언어의 감옥〉에서 기호학의 ‘블랙박스’라고 부를 만큼 그레마스의 핵심적인 메카니즘이라고 하겠다. ‘서술문법의 기본요소’는 앞장에서 간략하게 제시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서술문법에 있어서 통사론과 의미론간의 특수한 문제, 분류론적 형태론에서 통합체적 관계로의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원래 II권의 서문에서 그레마스는 I권에 대한 계속성과 함께 변화를 내세운다. 말하자면 I권에서 닦은 길을 계속 추구하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는 뜻이 된다. 역자는 II권 중에서 〈신화적 서술문의 해석이론을 위하여〉〈서술물의 행동자들의 구조〉〈서술 기호학의 한가지 문제: 가치의 대상들〉〈행동과 행위자, 형상소〉〈양태성의 이론을 위하여〉〈준제의 양태화에 관하여〉 등의 논문을 번역하였다.

II권의 주요주제는 발화체의 승부를 변형시키는 양태성에 대한 연구라고 하겠다. 양태성의 연구와 함께 그레마스는 프롭의 기능중심의 서술에서 탈피하여 서술문법을 한층 심화시킨다. 따라서 논리 의미론적 추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첫술에 접사리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군데 있다. 더욱이 그의 용어개념을 한국어로 옮겨서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의미에 관하여》는 한편으로는 〈정념의 기호학〉을 예고한다. 그레마스 기호학의 방법론을 정립한 저서로서 번역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번역이 평이하고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

김성도 옮김/인간사랑/A5신/515면/20,000원